

지역 소식통

정읍시, 복지택시
연중무휴 확대 운행

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 주민을 위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택시를 오는 7월부터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1년 내내 쉬지 않고 운행한다.

시는 22일 시청에서 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협의회와 복지택시 주말·공휴일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 곳의 택시 단체는 휴일 운행에 적극 동참하고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복지택시는 그동안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다녔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장보기와 병원 방문, 각종 행사 참여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확대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들은 요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지역 교통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13개 읍·면

클린농촌단 활동 본격화

부안군은 주민이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린농촌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내 13개 읍·면이 모두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총 126명으로 꾸려진 클린농촌단은 마을 안길이나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및 쓰레기 거점수거장소를 청결하게 정비하는 등 농촌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대성황

장어잡기 체험·수박 빨리 먹기 대회 등 인기... 11만1500여명 방문 '인산인해'

고창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23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11만1500여 명이 찾는 등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연령별, 가족 단위, 연인들을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어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직접 잡은 장어를 즉석에서 손질장으로 교환해 주는 '장어잡기 체험'과 시식 행사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물총싸움과 스티ل 넘치는 장에 물 3종경기, 수박 빨리먹기 대회 등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아울러 고창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박 품평회'와 화려한 '수박 카빙대회' 작품 전시 등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이번 축제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성을 높인 '계합형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복분자는 단위



고창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23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별 소포장 판매와 함께 보정금 지원을 통해 가격 부담을 낮췄고, 초벌구이 풍천장어 역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농산물 판매장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사장 내 대형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는 등 고질적인 대기 시간

과 폭염 불편을 해소하며 한층 쾌적해진 축제 환경을 선보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상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창 김소희 선생 서거 31주기 기념행사

소리꾼 남상일·고창 출신 여성 판소리 그룹 비조채선 출연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최·주관한 '국창 김소희 선생 서거 31주기 기념행사'가 지난 20일 흥덕면 김소희 생가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신유섭 동리문화사업회 이사장, 박윤초 명창(김소희 선생의 딸), 신영희 명창(김소희 선생의 제자), 국악인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축하공연에는 만장제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소리꾼 남상일과 고창 출신 여성 판소리 그룹 비조채선이 출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소희 명창의 소리 세계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무대는 전통 판소리의 가치와 계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동리문화사업회는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과 김소희 명창을 비롯한 고창 출신 명창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판소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유섭 이사장은 "대한민국 판소리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판소리의 본 고장으로서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434년 전 조선왕조실록 지켜낸 정신 기린다

정읍시, 이안 기념행사 성료...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 지켜낸 안의·손흥록 선생 희생 추모

정읍시가 임진왜란 당시 유일하게 남은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을 지켜낸 안의와 손흥록 선생의 헌신을 기리고자 지난 20일 내장산 일원에서 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열고 22일 남천사에서 송모제향을 거행했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 보존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과 다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일 내장산 탐방안내소 주변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시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립국악단과 클라양앙상블의 식전 음악 공연을 시작으로 캐런무용단의 검무가 무대에 올랐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메아리극단이 실록을 피난시키는 과정을 연극으로 생생하게 재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 직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시민 100여 명이 백성들의 민복을 입고 일주문에서 용굴암까지 걷는 행렬에 동참했다. 이들은 실록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를 직접 들고 걸으며 434년 전 험난했던 여정을 다시 밟았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일월오봉도 부채 만들기, 우리집 왕 그리기, 느린 우체통, 전통 놀이, 주먹밥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꾸려졌다. 어진(왕의 초상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구역도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정읍문화원은 실록 보존에 기여한 정읍의 역할을 담은 기록집 '조선왕조실록 수호의 길' 1000부를 펴내 지역 학교와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나누어 줄 계획이다.

뒤이어 22일 남천사에서는 안의와 손흥록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송모제향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정읍문화원 관계자와 탐진 안씨, 밀양 손씨, 도강 김씨 문중 후손들이 모여

전통 제례에 따라 선조들의 송고한 회생을 추모했다.

정읍의 선비였던 두 사람은 1592년 전주사고마저 불탈 위기에 놓이자 6월 22일 마을 주민 20여 명과 뜻을 모아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겼다. 이후 은적암과 비례암 등 더 험준한 산속으로 자리를 피하며 1년이 넘도록 기록을 무사히 지켜냈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의 헌신을 높게 평가해 두 선비가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으로 피난시킨 6월 22일을 지난 2018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위기 청소년에 긴급 생활비 지원 결의

총 3명에 최장 6개월 지급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해체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 3명에게 최장 6개월간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시와 교육지원청, 정읍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해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를 거쳐 뽑힌 청소년들은 앞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각자 상황에 맞는 긴급 생활비나 활동비를 받는다.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한 심리 상담과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 도움이 시급한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 지원금 등 다채로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다지고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짚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중보건의 감소 속 의료 공백 막는다... 적극 구인 총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공중보건(사)의(이하 공보의) 배정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역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 위축을 막고 1차 보건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우수 의사 인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공중보건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의사 채용 추진은 최근

부안성모병원과의 지역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군의 선제적 의료인력 확보 대책 중 하나다.

현재 군은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중단이나 순회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채용되는 의사는 보건기관 최일선에 배치되어 진료 및 민생 질환 관리 등 군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동력이 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